

우리마을 어울림정원 확대 조성

전주시, 올 하반기 노송동 능소화 꽃길 등 12곳 추가... 시민 참여로 만들고 관리하는 정원 지속 늘리기로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도시 주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꾸는 어울림정원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 하반기 시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을 12곳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은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정원을 함께 만들고 가꾸며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주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7개동 32개 사업을 선정할 상태로, 올 하반기에는 △노송동 능소화 꽃길 조성 △덕진동 대지마을 화단 조성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7~8월 두 달 간 각 사업장별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상반기 중 △중산공원 책갈피정원 △서신동 수국과 함께하는 작은 테마정원 등 20개 어울림 정원을 조성했다.

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에는 그간 조성된 어울림정원들을



전주시는 올 하반기 시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우리마을 어울림정원'을 12곳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노송동 능소화 꽃길 조성 △덕진동 대지마을 화단 조성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진행, '올해의 정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성된 어울림정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지원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도심 곳

곳의 유휴부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250여개의 어울림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어울림

정원이 만들어지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환경 조성 뿐 아니라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조성되는 어울림 정원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청(구청장 최라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13일간 '추석명절 대비 부정축산물 및 축산물위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구청,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6명의 합동단속반이 대형매장, 재래시장 등 축산물 취급업소 68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선물세트 표시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위반 등 유통 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인 취급행위, △가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 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현장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DNA동일성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최라기 구청장은 "명절대비 축산물 위생 부정행위 단속을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함께 안전한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덕진공원 주변 데크 산책로 정비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산책을 위해 덕진공원 주변 노후화된 데크 산책로 정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해 덕진공원 주변 데크 산책로 중 웰빙그린웨이를 걸으며 덕진연못을 관광할 수 있는 주요지점 2개소 약 75m를 정비했다.

시는 이번 정비 공사로 덕진공원을 찾는 여행객들 및 시민들에게 깔끔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데크 산책로 파손으로 공원주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덕진공원 주변 환경정리를 위한 내외부 순찰을 강화한다. /송효철 기자

도내 호우특보 모두 해제, 별다른 피해는 없어

밤사이 일부지역 100mm 이상 많은 비... 최대 182mm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밤부터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4개 시군에 호우경보(6개 시·군)와 호우주의보(8개 시·군)가 발효되었으나, 22일 오전 11시를 기하여 모두 해제되었으며, 별다른 피해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북도는 21일 오후 4시 도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지자마자 선제적으로 상황관단회의를 열어 시·군에 산간계곡 경보방송 실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21일 오후 7시 호우주의보 발효 시점을 기해 도내 전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호우상황에 따라 21일 2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3개 협업부서와 함께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하여, 시군 피해접수 현황 등을 조사했다.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11시까지 도내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70.2mm이며, 시군별로는 고창군에 119.9mm의 비가 내렸고, 국지적으로는 순창 북흥 182.0mm, 고창 상하 150.0mm, 임실 강진 129.0mm, 진안 주천 112.5mm, 정읍 내장산 129.5mm, 완주 모악산 100.0mm 등 도내 곳곳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그동안 기습을 부렸던 폭염은 한 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면통제되었던 지리산 17개 탐방로는 22일 낮 12시를 기하여 모두 개방되었으나, 내장산 탐방로 15개 노선은 아

직 전면통제 중이므로 산행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밤부터 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순창군 북쪽면 밭 침수 1건(0.15ha), 순창군 구림면 벼도복 1건(0.39ha) 등 2건(0.54ha)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민들께서는 만일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므로, 집 주변의 산사태 등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붕괴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유사 사고 예방' ... 도 소방본부, 도내 여인숙 긴급 소방안전점검

시군 등록 영업장 도내 168곳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는 지난 19일 오전 4시경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시 소재 여인숙 화재와 관련, 도내 유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여인숙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직후인 20~21일 양일간 도내 여인숙 현황을 재차 파악했고, 확인된 16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여인

숙의 용도·규모에 따른 소방점검, △400㎡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등 여인숙 및 인근지역 정보파악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실시한다.

특히,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기초소방시설은 화재 취약 영업장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각 여인숙의 면적, 구획된 실 등에 따라 필요한 소요수량에 적합하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재운 소방본부장은 "저소득층 달

여인숙은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로서 화재시 고층 소화시설 등이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쭉방, 컨테이너 하우스 등 유사 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예방으로 화재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인숙은 저소득층 탈방 장기투숙자들의 주요 거주시설로서 건축물의 노후화, 실내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 등 화재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로 주로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며, 최근 5년간(2014~18년) 도내 여관 및 여인숙 화재는 8건으로 나타났다. /강석훈 기자

전북새마을회, 생명살림지도자 정책 연찬 진행

전북도새마을회(회장 정준모)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2019년 8월 19일~20일 양일간 전국 시도, 시군구 새마을회장단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하는 '2019 생명살림지도자 정책 연찬'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전북도시, 군 회장단도 참여했다.

정책연찬은 새마을운동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남북 평화와 화해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전국 200만 새마을운동 회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진행됐다. 새마을운동 목표로 설정한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건 건설 4대 중점운동으로 설정한 '생명살림운동, 평화나눔운동, 공경

문화공동체운동, 지구촌공동체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도, 시군구별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새마을운동 1차 3개년 대전환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대전환계획과 실적을 비교·분석함은 물론 대전환계획 대비 달성률을 파악하고 계획 대비 실적 미진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달성률을 향상하기 위한 추진실적과 발표도 이뤄졌다. /김영태 기자

'사랑의 물품' 이 왔어요

국제로타리 3670지구 풍남로타리클럽 호성동 노인복지시설 4곳에 TV 등 전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풍남로타리클럽(회장 민경춘)은 로타리재단 지구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호성동 봉사사무소에서 호성동 관내 열악한 경로당 4개소에 가전제품(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달된 물품들은 순동아 1차경로당에 TV43"1대, 우호경로당에는 냉장고, 감정마을 경로당에는 냉장고, TV43"1대, 벽걸이 에어컨, 배실마을 경로당에는 냉장고, TV43"1대, 벽걸이 에어컨 등을 전달했다.

호성동 관내 노인 어르신들은 "정말 필요한 물품인데 지원해 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민경춘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클럽창립 40주년을 맞은 전주풍남

로타리클럽은 1979년 5월 창립, 현재 회원 266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클럽으로서 매년 3억원 이상을 지역사회 봉사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수병원에 첨단의료기기가 탑재된 대형검진차량을 기증했다.

또한, 암 환자 수술비 지원사업, 장애우 지원사업, 모범 중·고생 장학사업 등 꾸준한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체이다.

한편,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펼친 호성동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지방자치의 인가를 받지못해 지원이 안되는 양노원들로 구성됐다.

자세한 문외는 풍남로타리클럽 김성주 사무장(063-226-034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풍남로타리클럽은 호성동 봉사사무소에서 호성동 관내 열악한 경로당 4개소에 가전제품(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래된 도시, 별을 켜다'

전주시, 풍남문광장서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제16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에너지의 날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떠올리며 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22일 제16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오후 6시부터 풍남문광장에서 제16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래된 도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가 함께 만드는 행사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전주 에너지지킴이도시, 어디까지 왔나?' 토크콘서트 △'기후천사가 나섰다! - 전주 도심 온도는?' 발표가 진행됐다. 또, 문화공연으로 △환경 매직, 수리수리 미술 공연 △이상욱 밴드 공

연 등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체험프로그램으로 △얼음조각 퍼포먼스 △에너지 절약 다짐 서약 및 북극곰 인형샷 △에너지 절약대회 △향초만들기 △플루트 시민캠페인 △이클루 무더위쉼터 △에너지 절약대회 △태양광 LED램프만들기 △별자리 행성 관측 등도 운영됐다.

전주시민들도 이날 오후 9시부터 5분 생활 속 에너지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함께해요! 전국도시 소등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제16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성공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현실화

전주시가 9월부터 일부 차량등록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자가) 승용차와 대사업용(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40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도내 타 도시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평균가의 각

(대형화물차, 버스 등)의 교부 수수료는 현행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수료 인상 대상 차량은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로, 기존 승용차 운전자가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전기자동차는 7자리 유지)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번호판 교부수수료 현실화로 번호판체계 개정안이 완전 적용되는 오는 2021년까지 91%의 현실화율(지출 대비 매출 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번호판 요금인상과 함께 도입 예정이었던 재규반사방식 필름번호판에 대해서는 개발 및 공급상의 문제로 시행시기를 오는 2020년 7월로 연기했다. /송효철 기자